

오프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특성연구

-1997년 S/S에서 2002년 S/S를 중심으로-

김 양 희* · 박 선 경**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f Decadence Represented in Haute Couture Collection

-Focus on the 1997 S/S-2002 S/S-

Yang-Hee Kim* · Sun-Kyung Park**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 Textile Design, Inh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2002. 9. 17 투고)

ABSTRACT

Decadence is a phenomenon that people express fear from their inside, so unsound aspects appear in the social culture when the existing society is about to be collapsed. This study covered the cultural and aesthetic meaning and the role of decadence by examining the concept and phenomenon of it and analyzing the real case of expression appeared in the modern fashion. Characteristics of decadent phenomenon were divided into sexual corruption, ideality, cynicism and extreme technique, and decadent expression appeared in the fashion images was examined based on the divided phenomenon.

Main results are as follows.

People bring the incidents that animals go through into relief, sticking to animal instinct when the society is on the decline. At that time, sexual decadence becomes remarkable, so voyeurism by exposure in their dress is deepen, revealing abnormal sexual propensity with bisexual tendency and sexual perversion.

The real facts and appearance of people are revealed by transforming and distorting bodies for the fear of humans inside suppressed in the fin-de-siecle mood.

The sense of alienation and helplessness of people anxious about the future is developed to cynicism expressing the uncertain emotion in their dress, and the formative methods of dismantlement, destruction and abrasion appear to form sickly images in the gloomy and cold mood.

The intention of affirmative decadence is realized by mixing heterogeneous styles and producing new things. Extreme decorative technique and gorgeousness are even mysterious and show the highest refinement.

Key Words : decadence(퇴폐), deformation(인체변형), cynicism(냉소), nihilism(허무주의)

I. 서론

데카당스의 개념과 현상들은 세련된 절충주의, 통일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전체에 대한 부분의 가치절상 등의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시대 문화의 붕괴를 촉진하여 새로운 발전 능력을 낳는다고 하는 데카당스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은, 세기말적 시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해체를 자행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어떤 현저한 유사성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데카당스의 개념과 현상을 이해하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실제 표현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문화적, 미학적 의미와 역할을 연구한다.

연구는 문헌 연구로 진행되었다. 데카당스 양식의 인식적 배경을 드러내는 문헌자료와 그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였고, 데카당스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1990년대 후반, 최근 5년간의 오프 꾸뛰르 컬렉션을 분류, 분석하였다. 대중성에 대한 고려가 더 많은 프레타 뽀르페나 패션광고 이미지 등으로의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이 대체로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어, 과감한 상상력의 실현이 가능하여 데카당스적 표현을 집약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오프 꾸뛰르 컬렉션으로 그 범위를 축소 제한하였다. 더군다나 범위를 넓혀서 다량의 사료를 통계 분석하는 질량분석을 한다해도, 이미지를 선택하고 수집할 당시 작가의 의도와 관찰자의 이해의 차이가 극복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간격이나 오류로 인하여 그 객관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특성을 인식하여, 제한된 범위내의 질적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II. 본론

1. 데카당스 예술

데카당스는 회화, 문학, 영화 등의 장르에서 그 표현을 찾을 수 있는데,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상징파의 예술운동과 그 경향에서 데카당스를 발견할 수 있다.

상징파의 극단적으로 세련된 기교, 탐미적 경향, 자학, 절망, 과멸, 향락의 태도를 비평하려고 하여 제정 말기의 로마 퇴폐기를 인용한 데서 프랑스 상징파 및 세기말 문학을 데카당스 문학이라고 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미적, 향락적, 감능적인 시풍을 지칭한다. 1890년에 전성기에 달했고 1902년에 종지부를 찍은 대략 15년간에 걸친 시인들의 활동으로 J. Laforgue, F. Jammes, 등이 있고 보다 폭넓게 보자면 C. Baudelaire, S. Mallarme, A. Rimbaud, P. Valery, A. Claudel 에 의해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분석에 의하여 포착할 수 없는 주관적 정서의 시적 정착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 프랑스 상징파 시의 새로운 바람이란, 정형을 채용하지 않는 자유시의 발전과 시속에서 산문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시적인 것을 찾으려는 순수시를 향한 의식적 노력, 전세대의 문학 개념을 부정하는 권리와 의무로의 문학적 혁신과 발전이라 하겠다.¹⁾

미술에서 상징주의에 앞서 1860년대부터 1890년대에 등장했던 유미주의운동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미주의는 미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반면 교훈적인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악마주의와 부분적으로 연결되었고 오직 미 자체만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을 중시한 결과 관능적 쾌락주의의 경향을 보이며 그 특징 일면은 상징주의로 계승되었다. 대표적인 작가 Whistler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여성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하는 현실세계에서 유리된 환상적이고 관능적인 여성성을 지니며 마르고 병약한 염세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²⁾

상징주의는 19세기 후반 인상주의의 실증적 표현에 대한 대립 및 저항으로 나타나, 형상화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내면, 관념 등을 상징, 우의, 표징 등의 수법으로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였다. P. Gauguin, M. Denis, G. Moreau, A. Beardsley, O. Redon, T. Lautrec, E. Munch 등이 상징파 화가의 맥을 이루고 있으며 삶, 죽음, 불안, 사랑, 성, 꿈, 환상 등을 주제로 삼았다.³⁾

Gauguin은 1889년부터 상징주의라고 불린 미술 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산업화된 사회가 사람들의 감정은 도외시한 채 물질적인 이득만 추구하는 불완전한 생활 속으로 사람을 몰기 때문에 서양의 문명은 정신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은폐된 감정의 세계에서 자기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시골에서 살았다. 또 Gauguin은 서양미술은 인간 집단이 한때 자연과 함께 천년만만한 삶을 영위했고 또 앞으로도 언젠가는 살게 될 세속의 낙원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원시종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Gauguin의 뒤를 이은 상징주의 화가들은 스스로를 나비파(Nabis)라 불렀는데, 대표적 인물 Denis는 내면적인 환상을 자연의 관찰보다 우위에 두었다. Moreau는 초자연적인 리얼리티에 대한 집착에 근거한 낭만주의적인 상상력으로 중세적인 몽상과 비슷한 지극히 개인적인 환상의 세계를 창조했다. Beardsley는 살로메가 자신의 유혹을 거절한 세례요한의 목을 치는 장면을 묘사하여 욕망과 환상에 사로잡힌 여성의 주관적 감정을 강력하게 표현해 에로틱하며 악마적인 이원적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Lautrec은 너무나 불길하고 억압적인 분위기의 몰랭루즈를 소재로, 19세기 후반에 널리 퍼져 있던 보편적 감정인 서양 문명의 정신적인 질환 증세에 대한 불만을 묘사하였다. 당시의 미술과 문학계의 분위기는 퇴폐주의와 악 그리고 어둠에 대한 자의적인 집착 증세로 물들게 되었다. 더군다나 어디서도 탈출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매혹적인 공포감으로 변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로 이런 불안감은 그들에게 창조적인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공포의 이미지를 표현한 Munch의 '비명'은 우리가 악몽을 꿀 때나 경험할 수 있는 그 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를 보여준다. 유령의 모습을 등장시키지 않고서도 이런 무서운 꿈의 세계를 표현했다.

상징주의는 20세기 초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전개된 예술운동인 표현주의로 이행하여 작가 개인의 내부생명, 즉 자아, 혼의 주관적 감정표출을 추구하였다. 이탈리아, 프랑스 회화의 범 국제

적인 보편성과는 달리, 조형적인 형식과 그 자율성에 대해 혼의 힘과 그 분출을 특징으로, 강한 정신 체험, 가시적 세계를 초월한 환상, 때로는 냉혹, 잔인할 만큼의 분석과 풍자등 위기적인 시대상황에 찢긴 개인의 미와 윤리에 집중한다. 반인상주의의 입장에 섰던 V. Gogh, P. Gauguin, E. Munch의 1885년부터 1900년에 걸친 화업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 화가들의 주관적 표현은 드라마틱하고 또한 집념에 가까운 테마를 소수의 강렬한 색채와 대비시키고 왜곡된 형태, 단순 긴밀한 구도, 선의 예리함과 역동성으로 파악하였다. 표현주의 화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재차 그룹을 결성하지도 못한 채 나치스 체제의 발흥과 동시에 퇴폐 예술로 낙인 찍혀 어려운 창작활동을 하다가 중단하기에 이르렀다.⁴⁾

1940년대에서 1950년대 할리우드에서 암흑가를 무대로 한 새로운 양식의 영화가 프랑스 비평가들에 의해 노와르 영화(Film noir)라 처음 불려 졌다. 2차 세계대전 후 참전 용사들은 승리감에 들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경제공황의 후유증과 전쟁후의 사회혼란뿐이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그 이전의 20년대와 30년대에 유행했던 탐정소설이 합쳐져 '노와르'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영화로 이어졌는데, 이 영화들은 전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했던 허무주의와 퇴폐주의가 담겨져 있었다. 주로 어두운 밤에 촬영되어 도시의 뒷골목, 담배연기 자욱한 술집, 가로등이 서있는 비에 젖은 거리, 살인과 음모, 에로틱 스릴러가 영화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우울하고 암울한 영상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독일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고 193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독일계 영화감독들에게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작품에 John Huston의 "말타의 매 The Maltese Falcon"(1941), Orson Welles의 "상하이의 여인 The lady from Shanghai"(1948) 등이 있는데,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욕망을 박진감 있게 묘사하였다.⁵⁾

<표 1> 문학, 회화, 영화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특성의 비교 고찰

특성 \ 장르	문학	회화	영화
사조	상징파 허무주의 퇴폐주의	유미주의 상징주의 퇴폐주의 표현주의	노와르 영화 (Film noir) 표현주의
주제	자학, 절망 파멸, 향락	삶, 죽음 사랑, 성 꿈, 내면세계	사회적 허무 인간의 욕망
이미지특성	유미적, 감능적, 탐미적 세련된기교	염세적, 환상적 불만, 공포, 악마적	암울, 에로틱 폭력적
작가	J. Laforgue F. Jammes C. Baudelaire S. Mallarme A. Rimbaud P. Valery A. Claudel	Whistler P. Gauguin M. Denis G. Moreau A. Beardsley O. Redon T. Lautrec E. Munch	J. Huston O. Welles

2. 데카당스의 개념 및 현상

프랑스어 Petit Robert 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데카당스는 폐허로 향하기(acheminement vers la ruine), 구조의 타락(dégradation d'une construction) 등 퇴폐를 뜻하고 있는데⁶⁾,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을지 모를 데카당스의 관념 자체의 형성은, 라틴어 명사 decadentia로부터 파생되어 중세 이후부터 근대 유럽인들의 친족어들, 영어의 decadence, 프랑스어의 décadence, 이탈리아어의 decadenzia, 독일어의 dekadenz등에서 추락의 의미로 사용되며 그 개념을 발전시켜왔다.⁷⁾ 이렇듯 데카당스는 쇠퇴의 의미를 지니는데, 성숙했던 사회, 문학, 예술이 쇠퇴로 기울어 질 때, 건전한 정신과 활동이 부자연, 불건전한 양상을 띄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이상한 감수성과 자극의 향락으로 치달는 퇴폐적 경향을 말한다.

데카당스는 낭만주의, 유미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 아방가르드 등 내면과 주관을 극대화한 과장되고 비정상적인 표현을 지닌 여러 주변개념과 모종의 관계가 있어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이 데카당스의 본질적

개념이 되지는 않는다. 이제, 데카당스의 인식적 배경을 드러내어 개념을 정립하고자,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며 변화해온 데카당스의 개념과 데카당스적 현상을 살펴본 결과로 다음과 같은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허무주의, 퇴폐주의, 인공주의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설명하였다.⁸⁾

1) 허무주의

데카당스는 Nietzsche 철학의 중심주제이다. 그에 따르면 데카당스에는 양극단이 존재한다고 한다. 기독교는 삶이나 예술을 부정하는 종교적 도덕적 암울로써 퇴폐의 상징이 된다고 한다. 삶 자체가 성장과 존속과 힘의 축적과 힘을 향한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에의 의지가 몰락할 경우 신 개념이 형성되며, 신 개념의 형성은 인간을 약화시키고, 쇠퇴, 무력, 위험을 일어나게 하는 퇴보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이 개념은 그 기만적 성격, 유약함과 회의주의, 냉소주의로 더욱 변화, 발전한다. 유약함은 적과 대면했을 때 일어나는 체념과 유순함 같은 것인데, 이 의지 마비증으로 인한 자신의 무가치를 삶의 무가치로, 허무로 발전시킨다.⁹⁾

2) 퇴폐주의

독일 현대문학 비평에 있어서 비합리주의는 데카당스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비합리주의에서는 오성과 이성에 대한 경멸, 직관에 대한 무비판적 찬미, 귀족주의적 인식론, 사회적 역사적 진보의 거부, 신화의 창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주의는 완전한 자유의 환상, 개인적인 자립과 도덕적, 지적 우월성의 환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상승기 부르조아 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개인주의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데카당스 국면의 개인주의는 개인을 절대적인 자기목적으로 까지 과장한다. 이때 '성'은 위기와 퇴폐의 주요 모티프가 된다. 어떤 사회 계급이 붕괴의 단계에 이르러 역사의 무대로부터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테마를 집요하게 사용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에서 '사회적'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무시된다. 이러한 시기에는 그 중심 이데올로기를 인간사회의 관계성을 떠나 고립된 생물학적 유기체로 이전시켜 상황을 극복해 보려 한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살아가면서 겪는 기본사건들(탄생, 성, 죽음)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려 애쓰게 되는 것이다.¹⁰⁾

3) 인공주의

하나의 예술운동이 정점에 다다른 후 더 이상 창조적 가능성이 결핍되었을 때 이 운동을 퇴폐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퇴폐성의 요소들은 비정상적인 것과 병적인 것들에 대한 유희 등이다. 19세기 말 심미주의자들은 데카당스를 필수요건으로 하였다. 그들에게는 실제보다 상상이, 자연보다는 인공이 더욱 숭배되어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에 탐닉하였다. 아름다움이 제한된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다면, 데카당스는 추한 것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아름답고 숭고한 것의 웅색한 한계에 비해 이상한 것, 비정상적인 것, 화려적인 것, 공포스러운 것, 추한 것이 갖는 무한한 다양성을 강조하며 특히 죽음에 대한 주제에 열중한다.¹¹⁾

3. 패션이미지분석

데카당스의 개념과 현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드러난 허무주의, 퇴폐주의, 인공주의 등의 특성들은 현대의 패션이미지에 그 개념과 현상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성적퇴폐, 이상성, 냉소, 극도의 기교 등 4가지 패션이미지로 분류하여, 데카당스 개념에서 도출된 패션이미지의 특징과 그 조형방법을 살펴 보았다.

1) 성적퇴폐

기존의 질서로부터 탈피하려는 패션이미지의 데카당스적 표현은 노출에 의한 관음증, 양성적 경향, 가학피학적 변태성욕 등의 성도착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 성적성향에서 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성적 해방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제도로부터 자유로와 지는 것이며, 이는 성적인 상상력의 세계를 탐험함으로써 공상과 내면의 생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인간존재의 확인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감성과 자유 그리고 추의 미를 인정하는 예술의 미학논리를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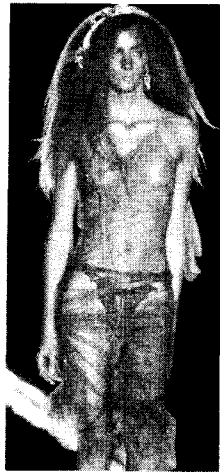
최근 컬렉션들은 그 동안 억압되었던 성적 표현의 욕구를 분출하여 성에 대한 개방과 집착이 패션이미지에 과도하게 표현된 경향이 있는데, 노출을 통한 것에서부터 도착적인 내용까지 그 표현력은 극대화되어 가고 있다.¹²⁾

(1) 노출

몸에 꼭 끼는 옷을 입어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 직물을 통한 신체의 암시적 노출을 하기도 하고, 가볍고 얇은 로맨틱한 질감의 쉬폰, 망사, 레이스 등의 비치는 소재 너머로 노출된 인체의 미는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노출 부위가 가슴에 국한되는가 하다가 점차 그 경계가 없어 전면 노출로 확대되거나 <그림 2> 특정부위를 강조하는 과감한 표현은 <그림 1> 패션이 환유적인 시각화를 통해 성적자극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매체임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림 1> Jean Paul Gaultier 2002 S/S Collection



<그림 2> Christian Dior 2001 S/S Collection



<그림 3> Halmut Lang 1996 S/S Collection



<그림 4> Christian Dior 1998 F/W Collection

또, 속옷은 비밀스런 의복 아이템으로 항상 겉옷에 숨겨져 있어서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은 것일 수도 벗은 것일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속옷의 형태가 디자인에 응용되어 속옷 같은 겉옷, 겉옷 위에 입은 속옷 등 속옷을 겉옷화 하는 현상은 노출을 연상케 하는 방법으로 1990년대에 급속히 받아들여져, 속치마, 브레이저, 코르셋 등의 아이템과 레이스, 새틴, 쉬폰 등의 소재들이 컬렉션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 19세기초 독일 상류 사회의 데카당스한 생활의 장면을 그린 표현주의 화가 Auto Dicks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Christian Dior의 1998년 가을/겨울 컬렉션은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슬립 형태의 이브닝 드레스에 아르데코 스타일의 보석들로 치장된 모델들을 밤거리에 옮겨 놓은 듯한 무대 위를 배회하게 하여 그것을 표현하였다.<그림 4>

(2) 도착성

성의 모호성을 야기 시킴으로 종래의 성 개념을 초월하여 변증법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탄생시켜 색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최근 패션 경향에서는 복식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결합시켜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양성적 특징을 보인다. 성적이미

지가 배제된 중성적 이미지가 아닌, 남성이 복식의 여성적 이미지를 채택하거나 여성이 복식의 남성적 이미지를 채택함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자아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반대성 이미지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경우로 복식 자체에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공유해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경우와 이성의 복식요소를 전체에 도입한 경우에도 착용자의 성을 완벽하게 위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착용자의 성이 남게되어 자신의 신체적 성과 복식을 통해 상대방 성을 공유함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둘 다를 포함한다.¹³⁾

이런 양성적 성향은 생물학적인 성보다는 성의 역할에 초점을 둔 사회적인 성을 중심으로 남녀 평등의 사회 분위기에 부응하는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이상적인 견해도 있으나, 인간의 야성적이고 원시적인 본능에 잠재된 성적 집념의 도착적인 욕구로 간주하여 반사회적이고 비이성적 행위와 관련된 불건전한 양상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인위적이고 왜곡되고 변태적인 것 등 추한 미가 새로운 미의식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상기 해 봐야 하겠다.

비정상적으로 간주되었던 성의 여러 개념들이

일부 하위문화 집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주된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는 시기에 이른 것을 말해주듯 복장도착 행위는 동성애적 성향의 컬렉션으로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여성적 성도착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 남성은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하거나 축소하는 X자형 실루엣으로 감성, 인내,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여성이미지를 사용한다. 특히 장식적 패션을 입거나 특정한 이성의 아이템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을 가진 완벽한 여성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여성의 드레스, 장갑, 목걸이, 반지, 팔찌, 브로치, 스카프, 코르사지, 부채, 깃털 등 여성이 사용하는 요소들을 사용한다. Jean Paul Gaultier는 1998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남성모델에게 가볍고 바삭거리는 느낌의 광택이 나는 새틴 소재로 된 풍성한 X자형 실루엣 드레스를 입혔는데, 러플을 장식하여 부드러움을 한층 더하였고, 긴 웨이브의 헤어스타일과 여성스런 메이크업을 하여 여성이미지를 연출하였다.<그림 5>



<그림 5> Jean Paul Gaultier 1998 F/W Collection

남성적 성도착의 경우 여성은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Y자형 실루엣으로 이성, 힘, 용기를 대표하는 강한 남성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아하고 고상

하고 아름다운 전통적 여성성을 버리고 거칠고 공격적이며 저속한 외모의 패션을 표출한다. 가죽의 상, 타이트한 바지, 언더웨어, 스타킹 등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복합적인 성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신축성있는 소재로 만든 몸에 붙는 의상을 통해 건강하게 단련된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것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근육질의 육체미를 여성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극단적 형태로 가학 피학적 변태성욕(Sadomasochism)과 관련된 특정한 형태의 의상이나 물건들을 패션에 도입하는 것도 볼 수 있다.<그림 6, 7> 패션은 페티시즘을 표현하기 위한 편리한 항목이다. 가죽이나 고무의 소재를 사용하고 콜셋, 하이힐, 바디 피어싱, 오픈 스파이크 마스크 등의 아이템을 착용함으로써 사회가 감추고 부정했던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중적이면서 노골적인 패션을 창조, 성과 힘에 기초한 패션을 추구한 것이다.¹⁴⁾



<그림 6> Abraham 2001 S/S Collection

<그림 7> Thierry Mugler 1998 S/S Collection

2) 이상성

오프 꾸뛰르 컬렉션의 디자이너들은 세기말의 혼란과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인공적인 이상한 형태로 인체를 변형함으로써 데카당스를 표현했다. 오랜동안 사용되어 온 콜

셋으로 상반신의 변형을 시도하기도 하고<그림 8>, 소매를 길게 확장시켜 인체의 프로포션에 변화를 가져오게도 하는 등<그림 9> 작가들은 인간의 내면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그 주관에 의하여 형태를 변형시켜 대상을 강조하려하는데, 이는 억눌린 시대적 상황을 왜곡되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자신의 표현욕구를 만족시키고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하나의 방법이며, 기계문명에 의해 파괴와 해체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존재의 어두운 이면과 허구의 상징적 의미의 표출인 것이다. 이렇듯 변형은 근본적으로 양면적인 것 혹은 대립적인 것들의 격렬한 충돌로 보며, 현실의 극단적인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그 실상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존재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¹⁵⁾

규범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정적 경향을 갖고 있으며, 실험적, 비현실적, 새로운 형식, 반발, 이탈, 분열, 과장 등을 그 특징으로 하여 예상을 뒤엎는 창작활동으로 충격적인 양식의 파괴와 혼합을 일삼는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구조의 변화에 의해 추한 형태나 더 나쁜 형태로 개조하는데, 확대, 축소, 삭제, 압축, 겹치기, 비틀림, 찌그러짐, 구부러 꼬임 등을 통해 스케일의 변형, 균형체계의 파괴, 공간질서 변형을 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¹⁶⁾

이렇게 변형된 스타일의 최근 컬렉션들은 디자이너의 주관적 감성이 중요시되어 표현한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패션이미지들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 그로테스크

비정상적이고,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우며, 기이한 형태의 패션 이미지들인 그로테스크는 정도가 지나쳐 정상 상태를 벗어난 극단적인 상태를 보여 소외되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한다. 또 추와 미, 무서움과 웃음, 호감과 혐오감 등 양립 불가능한 성질의 것을 공존시켜 그 충돌로부터 오는 부조화를 통해 양면적인 이상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10> 이런 이질성은 때로 일반적 규칙을 이탈하는데서 오는 풍자와 유희를 일으켜 작품의 획일화된 부분들을 비판하고 기존질서의 위선이나 횡포에 대해 반발하여 새롭고 창조적인 패션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인체변형, 화장, 마스크, 과도한 가발<그림 11> 등으로 완전한 양면의 이미지를 구축한다.¹⁷⁾



<그림 8> Thierry Mugler 1999 F/W Collection



<그림 9> Jean Paul Gaultier 2002 F/W Collection



<그림 10> Seredin & Vasiliev 2001 F/W Collection



<그림 11> Jean Paul Gaultier 1998 F/W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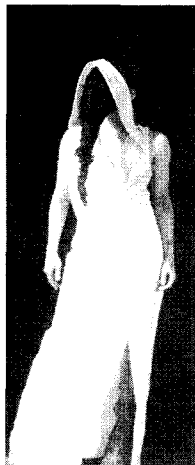
(2) 공포

내면의 공포 뿐 아니라 죽음과 연관된 주제의 패션이미지들을 통해 인간실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강렬한 데카당스적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3>은 Nicolas Le Chauchois 의 2002년 F/W 컬렉션으로써, 새 부리처럼 앞을 뾰족하게 돌출 시킨 검정 마스크형 오브제를 사용하여 눈, 코, 입을 과감히 삭제하고 얼굴크기는 확장, 변형하였고, 흰색 의상을 대비시켜 실루엣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하였는데, 그 모호함과 이상성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형성하고 있다.

Martin Margiela, Halmut Lang, Hubert Barrere, Seredine & Vasiliev 등의 신진디자이너들도 피 흘리는 모습이나 인체의 장기를 그대로 묘사하기도 하고 인체의 일정 부위를 삭제하거나 변형하여 무섭게 소름끼치는 파괴적이고 잔인한 묘사나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섬뜩한 실험적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12> Seredin & Vasiliev
2002 F/W Collection



<그림 13> Nicolas
Le Cauchois 2002
F/W Collection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은 사물의 실험적이고 신비적인 조형을 기초로 하는 초현실주의적 기법의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어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음으로 인해 형태를 왜곡 변형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의

성적이미지를 통해 원초적 생명력을 표현하거나, 심리근저의 욕망을 몽환적인 혼합체형식으로 표현하는 오토마티즘 기법으로 무의식 세계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방법을 패션이미지에 도입한 것을 볼 수 있다.¹⁸⁾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도입한 디자이너로 Seredine & Vasiliev를 들 수 있는데, <그림 12>에서는 여러 개의 어린아이 얼굴을 인체의 몸통 하단부분과 머리에 각기 방향을 달리하며 배치시켜 그의 작품 세계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3) 신화적, 악마적, 동물적 변형

신화나 악마 또는 자연 생물체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패션에 연결시켜서, 이성과 의지를 표방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한계 상황을 이끌어 가는 인간의 퇴폐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원시미술에서 행해지던 주술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초월적인 힘이나 존재에 대해 신념을 두는 경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림 14>에서는 새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몸통 부분은 얽고 스커트는 뒤가 더 길고 아래로 갈수록 퍼져 새의 꼬리부분을 연상케 하는 검정 가죽원피스에 넥라인을 깃털로 두른 후 양어깨에 새의 머리부분을 위치시키고, 눈 화장과 헤어스타일 역시 새의 두상과 흡사하게 변형시킨 모습을



<그림 14> Givenchy
1998 F/W Collection



<그림 15> Thierry Mugler
1998 F/W Collection

보여 주고 있다. 동물의 이미지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그림 15>는 Thierry Mugler의 1998년 F/W 컬렉션으로, 뱀이 몸을 휘감는 모습을 실크스크린 프린팅 기법으로 표현한 원피스 드레스, 그 위에 덧입은 코트 소매 자락으로 흘러나온 긴 털, 흑백으로 염색한 머리를 하나로 묶어 내린 꼬리가 동물의 털 같은 머리카락, 검정색 눈과 입술화장 등 전체를 무채색 톤으로 하여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모습을 연상케 하여 신비감을 주고 있다.

3) 냉소

무력, 병약 그리고 우울한 분위기의 작품들은 오히려 냉소적인 당당함 속에 표현되었다. 시대적인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상상과 기대 등으로 인간 삶의 내면에 있는 여러 상황들인 고독, 고달픔, 욕망, 소외, 절규 등에 이르는 불확실한 감정들을 복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다양한 양식을 융합시키는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관계 있는 것 혹은 관련 없는 의복구성 요소들 즉, 아이템, 디테일의 위치전환을 하고 주로 균형과 조화를 깨는 비대칭적 구성을 하거나, 디자인, 소재, 색상을 전혀 엉뚱한 부분으로 전위시켜 사용하는 작업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킨다. 또 소재를 마모와 마찰의 흔적을 도입하여 오래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변용 하는 작업을 즐겨하는데, 찢기, 구기기, 구멍뚫기, 탈색, 주름, 프린징, 패치워크 등의 기법을 사용하며, 원색계열의 대비가 심한 색상보다는 차가운 색상이나 무채색 계열로 냉소적인 분위기를 만든다.¹⁹⁾

2001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Givenchy는 흘러내리는 듯한 헐렁한 검정 슈트와 짙은 회색 쉬폰 위에 흰색 쉬폰을 찢어 아플리케이션하여 마모된 느낌을 주는 블라우스를 입고 창백한 피부빛깔과 검정색 립스틱으로 화장한 모델을 퇴색되고 공허한 분위기의 무대 위에 세워 그것을 연출하였다.<그림 16>

<그림 17>은 Ch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검정색 립스틱, 짙고 깊어 보이는 눈 화장과 함께 차가운 청색의 어두운 조명아래서 우울하고 병적인 이미지로 웨딩드레스를 소개하고 있어, 기존의 결혼예복에 대한 코드를 냉소적으로 전복함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한층 강조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림 16> Givenchy
2001 F/W Collection



<그림 17> Christian Lacroix
2000 S/S Collection

4) 극도의 기교

최대한의 기교와 화려함과 복잡함은 긍정적인 데카당스의 의지를 실현하였다. 퇴폐의 특성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방식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을 혼합하여 변형을 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오던 고정관념을 깨고, 시대적 양식의 절충적인 융합으로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어 현대적인 방향성을 띄게 하거나, 지배민족 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의 소수민족 복식의 이국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믹스하여 새로움을 창조하는 다문화 혼성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향락적이고 이상하며 부자연스러운 감수성과 분위기를 따르는 데카당스적 표현을 위해 새롭고 특이한 형태의 절제되지 않고 넘쳐나는 화려한 시각효과를 원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현란한 색상과 이국적 느낌의 라틴 풍 패션, 꽃무늬 셔츠, 두건, 인디언 풍의 액세서리, 아프리카 직물, 차도르 등 다양한 문화권의 민속적 아이템이나 소재

를 섞어 사용하고, 공예적 감각의 자수, 비드, 스팅글, 세퀸, 핸드 프린팅, 페치워크, 프린징 등으로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⁰⁾

Ungaro나 Dior의 최근 작품들은 구성 면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정교하게 재작업된 다양한 소재를 복잡하게 섞고 조화를 이루게 하며 세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극도의 장식성은 액세서리가 의상이 되고야마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그림 18> 또한 동양적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채롭고 화려한 색채의 장엄한 분위기로 그 신비감을 극대화하고 있다.<그림 19>

또한 Christian Lacroix는 시대나 민속의 질충적인 융합을 작업방식으로 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그림 20> 의 2002년 S/S 컬렉션은 아프리카 문양의 텍스타일을 페치워크한 상의와 역시 아프리카 문양을 세퀸으로 자수한 흰색 스커트의 투피스에 고급실크 망사와 레이스 소재를 사용하고 비드 장식을 더한 터번을 하여, 섬세하게 수 작업한 극도의 기교와 장식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9> Givenchy
1998 F/W Collection



<그림 18> Christian Dior 1998 S/S
Collection



<그림 20> Christian Dior
2002 S/S Collection

퇴폐개념의 특징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특성과 조형방법을 종합,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퇴폐개념 특징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특성과 조형방법

데카당스의 개념적 특징 이미지의 특성과 조형성		성적퇴폐	이상성	냉소	극도의기교
데카당스 이미지의 특성		관능적 도착적(양성적, 변태성욕적)	그로테스크 공포, 불안정적 초현실주의적 양면적, 이질적 동물적, 신화적, 악마적	우울 무력 병약 차가움	융합 화려함 복잡함 신비감
조 형 성	색상	검정, 빨강 등 대비가 강한색상	무채색 강렬한 액센트색상	무채색 어둡고 차가운색	다양한 색상 혼용
	소재	쉬폰, 망사, 레이스 등 비 치는 소재 니트, 스판, 가죽 등 밀착 소재	가죽, 털, 플라스틱, 고무에서 직물에 이르기까지의 다양 한 소재사용	일반소재를 마모시켜 사 용	극도의 장식용 사용 (자수, 비드, 스팅글, 세 퀸)
	형태	노출이나 밀착에 의해 인체선이 드러나는 실 루엣	디포메이션된 실루엣	슬림한 직선형	제한 없는 형태
	기법	노출 가장(반대의성으로) 페터시	변형 삭제, 전환 돌출, 강조, 왜곡, 과장 비대칭 축소	파괴, 전환 마모(찢기, 탈색, 구기, 주름, 프린징, 패치워크, 구멍)	아이템 플라주 패치워크 장식(자수, 비딩, 핸드프린팅, 프린징)
디자이너	J. P. Gaultier Ch. Dior Halmut Lang Abraham Th. Mugler	Th. Mugler J. P. Gaultier Seredin & Vasiliev Nicolas Le Cauchois Givenchy	Givenchy Ch. Lacroix	E. Ungaro Ch. Dior Ch. Lacroix	

이상과 같이 패션이미지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표현은 처음에는 충격과 거부로 다가오지만 점차 그 강인함으로 매료하여 흡수되게 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고수하는 꾸뛰르들 에게도 그 영향력을 행사, 변화시키기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며 새로운 을 모색한다.

III. 결 론

그 어원이 중세이후 등장한 데카당스는 허무주의, 인공주의, 퇴폐주의적 사회 문화 현상으로서, 문학, 예술, 영화 등의 장르에서 표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형성되어온 개념들이 현대패션

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 특성을 드러내었는지 고찰하였다.

첫째로, 사회가 쇠퇴로 기울어질 때 인간은 동물적 본능에 보다 더 집중하여 동물이 살면서 겪는 사건들을 부각시킨다. 이때 성적 퇴폐현상은 두드러져 복식에서도 노출에 의한 관음증은 심화되고, 양성적 경향과 변태성욕 등의 복장도착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성향을 발휘한다.

둘째로, 시대상황에 억눌린 인간내면의 두려움과 공포의 표출로 인체를 변형, 왜곡함으로써 인간의 실상과 현실의 모습을 드러낸다. 외향은 그로테스크하며 불안정적이고 이질적인 형태를 띠게되며, 신화, 악마, 동물의 모습과도 과감히 결합하여 매우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셋째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인간의 소외감과 무력감은 냉소주의로 변화하고 발전하여, 그 불확실한 감정들을 복식으로 표출하는데, 우울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병약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해체, 파괴, 마모 등의 조형적 방법을 동원한다.

넷째로, 이질적 양식을 혼합하여 새로움을 창조하여 극도의 장식적 기교와 화려함으로 세련의 극치를 보여 주면서 긍정적인 데카당스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데카당스적 표현은 기존형식에 반대하고, 비합리적이며, 이미지 중심의 복합성을 지닌 현대 패션이미지 내부에도 존재하면서 그 정신과 연결되고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다양한 사고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²¹⁾

참고문헌

- 1) 이준섭(2002). *프랑스 문학사*, 서울: 세손, pp.51-82.
- 2) 김정선, 김민자(2001). 빅토리아시대 유행복식과 반 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복식*, 51(6), pp.7-9.
- 3) E. H. 굼브리치, 최민 역(1987). *서양미술사*, 서울: 연화당 미술선서, pp.556-601.
- 4) H. W. 젠슨 & A. F. 젠슨, 최기득 역(2001). *서양미술사*, 서울: 미진사, pp.452-461.
- 5) 존 오로, 김경옥 역(1999). *영화와 모더니티*, 서울: 민음사, pp.315-331.
- 6) Rey, A. et Rey-Debove, J.(1987). *LE PETIT ROBERT*, Paris: Dictionnaire le Robert, p.454.
- 7) 마테이 칼리니스쿠, 이영옥 외역(1998).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서울: 시각과 언어, p.189.
- 8) 이는 마테이 칼리니스쿠의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에 수록된, 수 세기를 거쳐 문학, 철학, 예술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데카당스의 개념연구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발전적 개념보다는 개념의 특성 분류를 통해 데카당스적 특성의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 9) 강영계(1995). *니체, 해체의 모험*, 서울: 고려원, pp. 104-106.
- 10) 마테이 칼리니스쿠, *앞의 책*, pp.216-233.
- 11) Perrot, Ph.(1984). *Le travail des apparences*, Paris: Seuil, pp.157-197.
- 12) 손미희(1999).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현상과 패션, *복식*, 46, p.63.
- 13) 채금석(1999). 현대패선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44, pp.38-41.
- 14) 이의정, 양숙희(1998). *패티시즘*, 서울: 경춘사, pp. 19-55.
- 15) 이효진(2000). 세기말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복식*, 50(3), pp.14-16.
- 16) 이정후, 양숙희(1999).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복식*, 45, p.192.
- 17)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The Grotesque*,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4.
- 18) 이경아, 박선경(2001). 20세기 미술양식이 활용된 패션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 학회지*, 1(1), pp.33-35.
- 19) 채선미, 유영선(1999).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시즘 경향, *복식*, 45, pp.64-65.
- 20) 최해정, 임영자(2001). 20세기말 현대패선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2), pp.156-157.
- 21) 김혜숙, 김혜련의 "예술과 사상"에서는 '경계 허물기', '역사주의', '무의미의 의미' 등을 통한 새로운 사고 가능성의 탐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심된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양성적 성향, 역사주의에서 나타나는 절충성, 형태 왜곡에 의한 이상성의 표현들은 김혜숙과 김혜련의 견해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다.